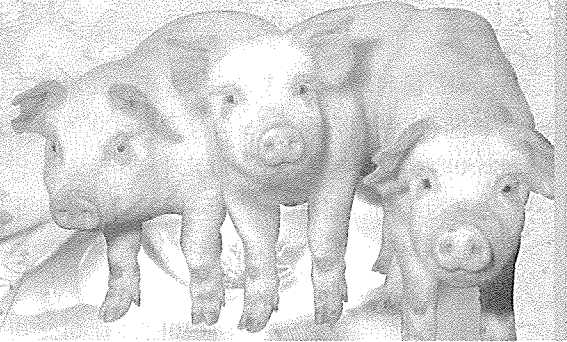


축산정보



돼지 소모성질환 컨설팅 자문단 본격 준비

정부의 돼지 소모성질환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돼지 소모성질환 컨설팅 자문단'이 본격적인 컨설팅을 앞두고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농림부는 지난 8월 11일 검역원에서 컨설팅 자문단 양돈협회 담당자와 도 담당자 및 가축위생시험소 병성감정 담당자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컨설팅 자문단 운영에 따른 준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컨설팅 자문단 운영요령 및 소모성질환 극복 성공사례, 소모성질환 병성감정 실시요령, PMWS와 양돈장 환기와의 관계 등의 내용으로 실시됐다.

돼지 소모성질환 컨설팅 자문단은 도별 5개반 이내, 3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운영된다. 컨설팅은 소모성질환 발생농가 및 신고농가 200호와 밀집사육 및 의심지역 농가 300호 등 500농가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컨설팅 사업비는 농가당 3백만원(국비 50%, 자부담 50%)이다.

도축세 폐지 축산업계 한 목소리

도축세 폐지되면 모든 150두 농장 5백여만원 절약

양돈농가가 돼지 한 마리를 도축장에 출하할 때 내는 '도축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8월 10일 동아일보를 구독하는 한 독자는 독자편지를 통해 "양돈농가가 돼지 1두를 출하할 때 내는 세금은 도축세 2,400원, 도축수수료 700원 등 3,900원에 이른다"며 도축세가 농가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고 밝혔다.

또한 "양돈선진국인 덴마크 농가가 1,500원을 내는 것에 비하면 2배 가까이 높고 덴마크는 이를 소비홍보

나 양돈산업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쓴다"며, "축산농가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없고 이중과세해 농가에게 부담만 주는 도축세를 하루 빨리 폐지해야 한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현재 도축세는 보통세로 분류되어 있다. 따라서 도축세는 도축장 소재지 지자체의 일반사업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어 사실상 축산업에는 재투자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축세 폐지는 축산업계 현안으로 떠올랐으며, 최근에는 한나라당 김영덕 의원(경남 의령·함안·합천)이 대표발의한 도축세 폐지를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도 국회로 제출됐다.

만약 축산업계의 바람처럼 도축세가 폐지되면 농가의 부담은 대폭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모든 150두 규모의 양돈농가라면 도축세 폐지 시 두당 약 500여만원(모든 150두 X15(MSY 15두일 경우)X2,400원=5,400,000원)을 절약하는 셈이 된다.

이에 따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등 축산업계는 도축세를 폐지하기 위해 축산물 개방화 시대에 맞서 올해를 축산업 안정을 위한 축산현안 처리의 해로 내걸고 축산업계의 의지를 모으고 있다.

돼지고기 구입 '신선도' 최우선

소비자들이 삼겹살을 구입할 때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사항으로는 '삼겹살 내 지방부착 정도'와 '육색'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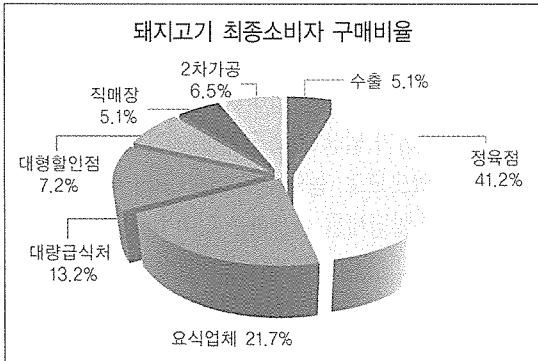
축산물등급판정소는 돼지고기 부위 중 삼겹살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 및 품질평가기준을 조사하여 돼지도체 등급기준 개정 및 돼지도체 등급의 소매단계 연계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10일까지 대한양돈협회와 등급

판정소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설문조사와 대면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총 449명의 응답자 가운데 66.4%가 돼지고기 부분육 중 '삼겹살'을 가장 선호한다고 밝혔으며, 목심 19.2%, 갈비 11.6%, 앞다리 1.8%, 등심 0.9%, 뒷다리 0.2% 순으로 조사되어, 삼겹살과 목심에 대한 선호비율이 매우 높았다. 또한 응답자들은 돼지고기 구입 시 1순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를 신선도와 지방부착 정도라고 답했으며, 2순위로는 신선도와 가격을 중시한다고 응답했다.

삼겹살을 구입할 때는 무엇보다 '삼겹살 내 지방부착 정도'와 '육색'을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삼겹살의 지방부착 정도에 따라 남성과 여성의 선호도는 약간 달랐으며, 여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저지방의 삼겹살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돈육 구입경로 직매장 등 변경 필요성 대두



최근 대형유통업체의 급속한 확장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돼지고기나 쇠고기를 구입할 때 주로 찾는 곳은 여전히 정육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부가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를 통해 2005년 7월 29일~2006년 4월 28일까지 생산농가 및 유통업체 등 811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가축 및 축산물 유통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돼지고기를 구입하는 최종 소비자들의 구입경로는 정육점을 통한다는 비율이 41.2%에 달했다.

이와 관련 농림부는 위생조건의 확보, 유통비용의 축소 등을 위해 대량급식처, 직매장 등을 이용한 소비자 구매비율을 늘려 거래단계를 가급적 축소시켜 나갈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 소비자들의 육류 구매 패턴이 고급화, 편의성, 위생 안전성 선호 등 다양하게 변하고, 판매방법도 대형 유통업체, 외식, 통신판매 증대 등 다원화되고 있으므로 향후 축산물 유통실태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미 FTA협상, 농산품 등 3개 양허안 교환

미국 시애틀에서 열리는 한·미 FTA 제3차 협상을 앞두고, 한국과 미국 양측이 농산물과 상품, 섬유 3개 분야 관세 양허안을 일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통상부는 지난 8월 15일 주미 대사관을 통해 한·미 양국 정부가 3개 분야 1만1천261개 품목에 대한 1차 관세 양허안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메일을 통해 교환된 1차 양허안을 바탕으로, 3차 협상에서 관세철폐 기간 및 각 품목의 관세철폐 단계 등 구체적인 내용 협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농산물에서는 쌀 외에 쇠고기 등 민감품목을 관세철폐 제외 품목으로 분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관세 감축 유예기간에 대해 한국은 즉시, 5년, 10년, 15년, 예외적 취급 등 5개 단계로 구성했으나 미국은 상품 분야와 동일하게 적용하자고 해 기본 틀 마련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찬성여론 조장 한·미 FTA 대토론회 강력 비판

농민단체, 농업계 대토론회 불참

지난 8월 4일 농림부는 양재동 aT센터에서 한·미 FTA 협상관련 농업계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는 정작 중요한 당사자인 농민단체 등이 참석하지 않은 채로 진행됐다. 이는 양돈협회와 한우협회, 낙농육우협회 등 축산단체와 농민단체들이 이번 토론회에 대해 강력 비판하며 공동으로 불참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축산단체들은 "이번 토론회는 한·미 FTA 찬성에 입각한 발표자와 토론자들로 구성되어 있어 국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찬성여론만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토론회에서 논의될 내용도 한·미 FTA 양허안, 품목별 영향분석, 민감품목 선정, 국내 보완대책 수립 등에 대한 내용으로 이는 농민단체와 충분한 논의가 전제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강력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언론과 국민을 상대로 협상과정에서 농민의 의견을 반영한 것처럼 유폐하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과 대화는 형식이나 횡수가 아니라 한번을 해도 '진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이날 토론회가 '한·미 FTA 농업계 대토론회'가 아닌 '한·미 FTA 농림부 대홍보회'에 불과하다며 이를 강력 비판했다.

한·미 FTA 3차협상 9월 6일

한·미 FTA 제3차 협상이 오는 9월 6일(수)~9일(토)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된다.

이번 3차 협상에서는 협정문과 관련 쟁점사항 및 상품양허안, 서비스·투자 유보안, 정부조달 양허안 등에 대한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미 FTA 협상대상에 축산물 제외 요청

전국 축협조합장, 김종훈 수석대표에 건의문 전달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회장 윤상익, 여주축협조합장)는 지난 8월 14일 한·미 FTA 협상단을 방문하여 협상대상에서 축산물을 제외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김종훈 한·미 FTA 수석대표에게 전달했다.

전국 축협조합장 149명 전원이 서명한 건의문에는 "UR 협상 이후 상대적으로 개방 폭이 큰 축산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한·미 FTA 협상대상에서 축산물을 제외할 수 있도록 최우선 배려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조합장들은 축산물이 농산물 생산액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10대 주요품목 중 상위 5개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 발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농연, 한·미 FTA 즉각 중단 촉구

지난 8월 8일~10일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주최 '제10회 전국농업경영인대회'가 개최됐다. 이번 대회에서는 한·미 FTA에 대한 농민들의 입장을 공고히 하는 전국농업경영인대회 긴급 결의문이 발표됐다. 전국에서 모인 농업경영인들은 긴급 결의문을 통하여 한·미 FTA 추진 즉각 중단, 비현실적인 농업재해 관련 대책 개선, 주요 농축산물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도입, 마사회 지방세 인하를 통한 농어촌사업 재원 마련 등 요구사항을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 농업인력 안정공급 방안 협의

외국인 농업연수생 제도가 내년 1월부터 고용허가제로 통합 시행된다. 이에 농업분야의 외국인 인력확보는 물론 외국인력에 대한 방역에 비상이 걸림에 따라, 정부는 지난 7월 19일 노동심의관실에서 고용허가제 운영체계 개선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농업분야 외국인력 안정공급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농림부와 노동부 등 관계부처 참석자들은 중국 등 농업을 선호하는 국가에서 외국인력이 안정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양돈협회 등은 농업이 제조업과 비교해 처우가 상당부분 차이가 발생해 외국인이 농업으로의 구직을 기피할 수 있으므로, 농업부문 별도 쿼터 확보를 위한 국가별 인원 할당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참석자들은 외국인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보완책을 협의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외국인력 도입 시 철저한 방역조치를 위한 방안도 부처협의를 통해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종돈장 검사대상 전염병 확대 방침

종돈장 검사대상 가축전염병이 확대될 방침이다.

정부가 마련한 '종돈장 방역관리요령 개정(안)'에 따르면 종돈장 검사대상 가축전염병에 '돼지 브루셀라'와 '돼지 유행성혈사병(PED)'이 새롭게 검사대상에 포함되었다. 이 두가지 전염병은 이전부터 논의가 되었던 사항으로, 기존 검사대상인 구제역과 돈열, 오제스키병 3개 항목에 돼지 브루셀라병과 PED까지 추

가될 방침이다.

한편 양돈협회는 추가해야할 검사대상 전염병 중 PED는 가축위생시험소 각 지소에서 아직 백신 항체와 야외 감염 항체를 구분할 수 있는 검사체계가 미흡하므로, 검사체계를 완비할 때까지 보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PED, 작년보다 세배 가까이 증가

돼지 유행성설사병(PED) 발생두수가 작년보다 무려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농림부가 발표한 6월 가축전염병발생월보에 따르면 PED는 총 5건, 2천130두에서 발생했다. 특히 올해 6월 까지 집계된 상반기 PED 발생두수는 6천768두(22건)로 작년 상반기 누계 2천261두(16건)보다 3배 가까이 증가해 큰 폭으로 늘어났다.

한편 돼지 오제스키병(AD)은 상반기에 총 1천605두(5건)에 발생해 작년 상반기 633두(14건)보다 발생두수가 2.5배 늘었으나, 발생건수는 줄었다. 또한 돈열은 경북지역에서 1건, 1천24두에서 발생했다.

가축공제 축사특약 정부보조 신설 협의

가축공제 사업에 있어서 축사는 현재 특약으로 농가가 공제료 전액을 부담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재해가 증가하고 있어 양돈농가 등 축산농가의 경영부담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재해는 가축과 축사에 동시에 피해를 입히고 있으나, 축사특약은 공제료 부담이 크기 때문에 농가의 가입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축사특약도 정부보조를 실시해 그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는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와 관련, 농림부는 지난 4일 농림부 관계자 및 소방방재청·양돈협회 등 축산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축사특약 정부보조 신설추진에 관한 회의를 열고 축사특약 정부보조 수준 및 예산소요액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양돈협회 최성현 부장이 “정부보조 수준을 50%로 정하여 농가의 가입률부터 높여야 한

다”고 제시한 의견에 대해 공감했으며, 농림부는 향후 관계부처 및 기관·단체의 협의를 거쳐 이를 시장개방 확대에 대비한 축산업 대책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가축공제 수해피해 복구에 ‘도움’

농림부는 지난 7월 중순 강원과 남부지역에 발생한 수해로 인해 피해를 본 축산농가 중 17농가가 가축공제에 가입한 것으로 밝히고, 이들 농가에서 호당 최저 100만원에서 최고 1억6백만원까지 공제금을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강원도 평창군 양돈농가 박병태씨는 금년 3월 가축공제에 가입하고 공제료 77만원을 납부했으며, 집중호우로 돼지 350여두가 폐사해 5천338만원을 가축공제금으로 지급받았다.

가축공제사업은 지난 1997년부터 가축에 한해 농가 부담 공제료의 50%를 정부가 보조하고 있으며, 2005년도 기준 양돈은 57.6%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한편 농림부는 올해 8월부터 농가의 공제료 일시납 부담을 덜어주는 공제료 분납제(연 2회)를 실시하고 있다.

미산 쇠고기 수입 재개돼도 구입 안 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다 하더라도 국내 주부 10명중 7명은 미국산 쇠고기를 구입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7월 대도시에 거주하는 주부 6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458명인 70.4%가 미국산 쇠고기가 재수입된다 하더라도 구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구입하겠다는 응답자는 29.6%인 193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번 조사결과는 지난 5월 조사 때 81.5%가 ‘구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것에 비하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거부감이 조금은 완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묻는 질문에는 ‘매우 불안하다(13.4%)’와 ‘불안하다(56.8%)’ 등 역시 10명중 7명꼴로 안전성을 믿지 못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매우 안전하다(0.2%)’ ‘안전하다(6.5%)’는 고작 6.7%에 그쳤다.

돈육 수입량 전년대비 70%, 12만톤 집계

올해 7월까지의 돼지고기 수입량은 총 11만9천64톤으로 집계되어 전년 누계량 17만3천598톤의 70% 정도가 수입됐다. 이 가운데 미국산은 3만7천168톤이 수입되어 전체 수입량의 31% 가량을 차지했으며, 특히 미국산 냉장돈육은 3천466톤으로 전체 수입 냉장돈육의 70%를 차지해 여전히 강세를 띠었다.

국별로는 미국산이 7월 한 달 동안 2천708톤, 7월까지 3만7천168톤으로 가장 많은 양이 수입됐으며, 캐나다산이 7월 2천119톤, 7월까지 1만938톤이 수입되어 미국의 뒤를 이었다. 한편 벨기에산이 1만1천87톤, 칠레 1만938톤, 프랑스 1만465톤으로 각각 1만톤을 넘어섰다.

한편 냉장돈육은 7월까지 총 4천900톤이 수입됐고, 냉동돈육은 총 11만4천164톤이 수입됐다.

“삼겹살 값 더 오르면 소비 줄일 것”

미산 쇠고기 수입재개, 돼지고기 소비와 무관 6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 지난 7월 12일부터 19일까지 651명의 주부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삼겹살 가격이 더 오르면 응답자의 67.6%가 삼겹살 소비를 줄일 것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삼겹살의 소비자 가격에 대해 93%가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삼겹살 가격이 더 오르면 응답자의 67.6%는 삼겹살 소비를 줄인다고 답했으며, 이 가운데 45%는 삼겹살 소비를 줄이고 돼지고기의 다른 부위를, 22.6%는 다른 육류를 소비하겠다고 응답해 가격 상승 시 다른 부위나 다른 육류로 대체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격에 상관없이 꾸준히 소비하겠다는 응답도 30.3%를 차지해, 소비자의 삼겹살에 대한 선호도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산 쇠고기 추석 전 수입 가능성

농림부는 지난 8월 14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농림부 소속 전문가 3명을 8월 24일부터 9월 3일까지 미

국 내 문제가 된 7개 작업장에 파견하고, 작업환경이 우리 요구대로 개선됐는지 여부를 최종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 측이 최근 한국의 지적사항에 맞게 작업장 환경을 개선했다고 서면 통보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제가 되었던 미국 내 작업장 환경이 모두 개선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이르면 추석 전에 다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는 지난 5월 미국 내 37개 작업장을 점검한 결과 일부 작업장에서 미국산과 캐나다산 쇠고기가 구분되지 않은 채 처리되거나, 광우병 위험성이 있는 30개월 이상 소를 도축하면서 쓴 작업도구를 국내 수입 대상인 30개월 이하의 소에도 사용한 문제점이 발견되어 작업장 승인을 유보했었다.

돈육 재고량 2개월 만에 증가

6월 돼지고기 재고량이 2개월 만에 다시 증가했다.

한국육류유통수출업협회가 29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돼지고기 재고량 조사결과 6월 돼지고기 재고량은 3천656톤을 기록해 전월대비 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위별로는 후지를 제외하고 모든 부위에서 증가했다. 후지는 조사재고량이 950톤으로 전월대비 17.0% 큰 폭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안심은 68톤을 기록해 전월대비 6.4% 증가했으며, 등심은 510톤으로 전월대비 16.0% 증가했다. 또한 전지는 452톤을 기록해 전월대비 24.9%, 삼겹살은 690톤으로 전월대비 19.6%, 목등심은 198톤으로 전월대비 23.6% 각각 크게 증가했으며, 갈비는 537톤으로 전월대비 1.0% 증가했다.

상반기 도축두수 줄어 - 6월 100만두 하회

1~6월 상반기 돼지 도축두수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4.6% 감소했다.

상반기 도축두수는 636만3천312두로 집계되어 전년 동기 666만8천986두보다 30만5천674두가 감소했다. 또한 암컷은 323만7천693두로 집계, 전년 동기 336만3천266두대비 3.7% 감소했으며, 수컷은 312만5천619두

로 전년동기 330만5천720두대비 5.4% 감소했다.

한편 6월 한 달 동안 집계된 도축두수도 96만5천 178두를 기록해 100만두를 넘지 못했으며, 전월과 견줘 8.4% 감소, 작년 같은 달보다 5.9% 감소했다.

성별로는 암컷이 49만2천816두로 전월대비 8.1%, 전년동월대비 4.4% 줄고, 수컷이 47만2천362두로 전월대비 8.8%, 전년동월대비 7.4% 각각 줄은 것으로 조사됐다.

상반기 양돈사료 생산량 작년 수준

올해 1~6월 상반기 양돈사료 생산량이 248만578톤으로 집계되어 작년 같은 기간 250만8천440톤 수준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번식돈용은 전년동기대비 3.2% 증가하고, 자돈용은 0.4%, 비육돈용은 3.6% 소폭 감소했다.

상반기 동안 집계된 자돈용 사료 생산량은 76만2천 454톤으로 첫머리돼지는 14만2천825톤, 젓뎀돼지 61만9천629톤으로 집계되어 각각 전년동기대비 9.9% 증가, 2.5% 감소했다. 비육돈용은 115만5천903톤으로 육성전기 67만902톤, 육성후기 40만1천697톤, 비육돈 3만8천518톤, 비육출하 4만4천786톤으로 집계되어, 각각 전년동기대비 3.6% 감소, 1.1% 증가, 11.1%, 27.7% 감소했다.

번식돈용은 56만2천221톤으로 작년과 비교해 3.2% 증가한 가운데, 번식용수돼지는 5천433톤으로 전년동기대비 3.5% 증가, 번식용암돼지는 7천573톤으로 19.2% 증가했으며, 임신돈과 포유돈도 각각 31만4천287톤, 23만4천928톤으로 각각 1.0%, 5.9% 증가했다. 한편 6월 한 달간 집계된 생산량은 41만3천 817톤으로 전월대비 0.5% 소폭 감소하고 전년동월대비 3.3% 증가했다.

농진청, 축사환경개선 현장컨설팅 실시

농촌진흥청은 집중호우와 소모성질병 등으로 가축 폐사가 증가함에 따라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7월 27일부터 오는 9월 29일까지 7개도 20개 시·군 27농가(돼지 13, 닭 14)를 대상으로 여름철 축

사환경개선 현장컨설팅을 실시한다.

이번 현장컨설팅은 축산연구소 연구원이 컨설팅팀을 구성해 축사환기와 소모성질병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농장을 직접 찾아가 현장 애로사항을 컨설팅하게 된다.

※문의 :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소득개발기술과 031)299-2741

검역원, 세계최초 돈열 진단용 유전자 칩 개발

돈열 바이러스의 감염여부를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는 돈열 진단용 유전자 칩이 개발됐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강문일)은 지난 21일 바이오매트릭스(주) 및 제노바이오텍(주)과 산업체공동 연구를 통해 돈열 진단용 유전자 칩을 세계최초로 개발했다고 밝혔다.

현재 야외에서는 돈열을 예방하기 위해 생백신을 사용하고 있어 돈열 진단시 야외주와의 신속한 감별진단이 중요하다. 그런데 기존의 돈열 백신주 및 야외주 감별진단은 증폭한 유전자의 제한효소절단법과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법을 병행 실시하여 장시간의 진단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었다. 그러나 새로 개발된 돈열 진단용 유전자 칩 기술은 돈열 백신주 및 야외주를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없이 4시간만에 정확히 감별 진단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역원, '가축방역기술지원단' 운영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강문일)은 최근 수해로 가축피해는 물론 가축질병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수해지역의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질병 예찰 등을 위한 '가축방역기술지원단'을 구성·운영했다.

방역기술지원단은 총 10개팀, 지역별로 구성되었으며, 지난 7월 19일터 활동을 시작해 27일까지 집중적인 활동을 벌였다. 특히 해당지역 양돈협회 및 한우협회 등 생산자단체를 방문해 축산농가와 가축방역기관을 대상으로 '수해 발생 시 방역관리 요령' 등 방역기술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축산농가에 대한 가축질병 예찰도 실시했다.

농림부 차관에 박해상씨



지난 8월 8일 노무현 대통령은 농림부 차관에 박해상 차관보를 승진 임명했다.

신임 박해상 차관은 1949년 경북 청도 출신으로 협성상고, 경북 농림부 박해상 차관 대 농학과 학사, 고려대 식량개발 대학원 석사, 경북대에서 농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기술고시 12회로 공직에 입문해 농림부 식량생산국장 등을 거친 정통 현장형 농림 관료이다.

〈경북 청도(57), 경북대 농학과, 농림부 식량생산국장·한국 농업전문학교장·국립식물검역소장·차관보〉

검역원, 새로운 구제역 혈청검사법 개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최근 중국, 러시아, 몽골 등 우리나라 주변국에서 구제역이 발생하고 이 구제역이 Asia 1형으로 밝혀짐에 따라, 혈청형에 관계없이 구제역 항체검출이 가능한 새로운 혈청검사법을 개발했다.

이 검사법은 검역원 해외전염병과가 국내 산업체인(주)제노바이오텍과 공동으로 산업화하여 3개국 평가를 통해 정확성을 검증했으며, 금년부터 이 진단법을 국내에 적용하고 있다.

돼지 오제스키병 생백신, 산업체에 기술이전

유전자 조작기술로 개발된 돼지 오제스키병 생백신이 산업화를 위해 생산업체에 기술이전 중에 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8월 4일 돼지 오제스키병 근절을 위해 불활화백신(사독백신)을 대체할 수 있는 유전자재조합 생백신을 개발하고, 이 기술을 생산업체에 이전 중이라고 밝혔다. 검역원은 또 이 생백신이 새끼 돼지에서의 안전성 시험과 임신 돼지의 유산유무, 다른 동물에서의 증상출현 유무에 대한 수차례 실험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 재조합 생백신은 산업화를 위해 국내 백신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생산기술을 이전하고, 업체에서 생산된 시험백신에 대해 안전성 및 효능시험과 야외농장에 대한 적용시험을 진행 중이다.

토양진단 가축분뇨 액비사용 매뉴얼 발간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은 가축분뇨 자연순환 농업의 일환으로 경종농가에서 가축분뇨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축분뇨 액비사용 매뉴얼' 및 '조건표'를 발간했다.

매뉴얼은 경종농가에서 가축분뇨 액비를 직접 살포할 때 액비성분과 함량, 토양 비옥도를 고려해 시비량을 쉽게 산정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으며, 17개 작물을 대상으로 토양검정에 의한 시비량 산정방법과 적정 액비사용량은 조건표로 제작됐다.

※문의 :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식물영양과 031)290-0316

돼지 대장균·살모넬라감염증 두드러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장 최상호)가 6월 한 달 동안 농장방역 실태점검을 6천15호에 대해 실시한 결과 의심축이 발견되어 검사 의뢰한 건수는 134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가운데 돼지는 설사 및 위축, 식욕부진 등으로 31건의 의심축이 발견되어 검사한 결과 대장균감염증과 살모넬라감염증이 각각 5건으로 가장 많고, PMWS 3건, PRRS 2건 등 총 23건의 질병이 확인됐다.

농협, 6개 권역별 전국양돈인 세미나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대표이사 송석우)는 전국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양돈산업 발전을 위한 우수양돈인 세미나를 6개 권역별로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양돈수급안정위원회와 양돈자조금으로 진행되며, 국내외 축산물 유통시장 동향과 돼지수급 전망을 통해 앞으로의 국내 양돈산업 환경변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소모성질병과 분뇨처리·농장 HACCP 적용

방안에 대한 해결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사례를 중심으로 PMWS 극복과 재발방지 대책, 가축분뇨 자원화 방안, 사육단계 HACCP 적용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세미나가 진행된다.

농협, 농산물 원산지 부정유통 신고센터 설치

최근 수입농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부정유통 행위가 기승을 부려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농협은 수입농산물의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이달부터 중앙회와 지역조합 등 전국 5천여 개 농협점포에 '농산물 원산지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농협을 이용하는 고객들로부터 불법유통 수입 농산물에 대한 신고를 접수 처리키로 했다.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수입농산물을 발견하거나 구입한 소비자들의 경우에는 가까운 농협 금융 점포를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내용에 따라 정부에서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농협에서도 별도로 신고사례금(농산물 상품권 5만원)이 지급된다.

◆ 신고체계 : 고객→전국농협지점→농산물품질관리원(☎1588-8112)

돈육 선물거래 모의투자대회 개최

오는 10월이면 돼지고기도 선물시장에서 거래된다. 농축산관련 상품으로는 선물시장에 처음 상장되어, 돈육 선물거래에 대한 축산농가와 투자자들의 관심도 증대되고 있다.

한국선물협회는 돈육 선물시장 개설에 맞춰 양돈농가와 일반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돈육선물에 대한 이해와 투자기법을 학습할 수 있는 모의시장을 개최할 예정이다. 모의시장은 8월 21일부터 9월 29일까지 6주간 진행되며, 수익률 우수상(총 시상금 220만원)과 농가·돈육관련 종사자·일반투자자 부문별 참가상 및 행운상이 시상될 예정이다.

참가신청은 14일부터 9월 24일까지이며 선물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한국선물협회 홈페이지 : <http://www.kofa.or.kr>

7월 종돈 수입두수 최고치 기록

한국축육개량협회에 따르면 7월 종돈 수입두수는 544두로 전월대비 6.3배, 전년동기대비 2.5배 이상 늘어 월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암태지 수입 비중도 전체 수입종돈의 68%인 370두가 수입됐는데, 이는 무더위로 인한 모든 생산성 저하 우려로 농가들의 후보돈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품종별로는 요크셔가 248두로 가장 많았으며, 랜드 레이스가 203두, 듀록 65두, 버크셔 24두, 햄프셔 4두로 집계됐다.

농림부 축산경영과장, 부이사관으로 승진



이재용 농림부 축산경영과장이 지난 8일자로 부이사관으로 승진, 발령됐다.

이재용 부이사관은 경북 의성 출신으로 건국대에서 사료영양학 학사 및 축산경영학 석사를 받았고, 지난

이재용 부이사관 '83년 농림부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이후 농림부 축산물유통과, 축산경영과, 축산정책과 등을 두루 거친 전문 축산관료이다.

제11회 '농업인의 날' 슬로건 공모

농협은 제11회 '농업인의 날(11월 11일)'을 맞이해 우리 농업의 미래를 밝게 표현할 수 있는 행사 슬로건(주제 및 부제)을 공모한다. 이번 공모전 당선작(1편)에게는 30만원의 농산물 상품권이 시상되며, 우수작(3편)에는 각 20만원의 농산물 상품권이, 가작(5편 이내)에는 각 10만원의 농산물 상품권이 시상될 예정이다.

☐ 문의 : 문화홍보부 02)2080-5717

☐ 응모 대상 : 농업인 또는 일반 도시민

☐ 제출 기한 : 2006. 9. 8(금) 까지

☐ 제출처 : FAX(02-2080-5747) 또는 E-mail

(sokch0429@nonghyup.com) 전송